

주간 2014. 12. 22.



전남농업정보

주간 기상전망

농산물 재배동향

2014년 전남지역 신안군 시금치 습해발생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과채, 과일 가격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입 동향

전년 동기대비 주요 김장재료 수입량은
2.9%증가, 김치 수입량은 1.0% 감소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겨울엔 복숭아나무가 얼지 않도록 감싸
주세요

겨울철 블루베리 동해 건조 피해 막아야

정책동향

전남도,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청정화 지속
유지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12.15일부터 시행

사업신청 안내

2015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농촌진흥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고, 기온은 평년(최저 기온 : -7~-4도, 최고기온 : 3~5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강수량 : 0~2mm)보다 적겠습니다.

※ 농산물 재배 동향(전남도)

▶ 2014년 전남지역 신안군 시금치 습해 발생 상황

- 신안 시금치 재배면적 '14) 1,140ha → 피해면적 544ha(재배면적의 47.7%)
 - － 비금면 642ha(피해면적 332), 도초면 449ha(212)
 - － 최근 잦은 강우와 흐린 날이 지속되어 포장에 습해 발생
-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시금치 재배면적
 - － '11)747ha → '12)778ha → '13)1,161ha(전국대비 18.2%)

※ 농축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00원/ℓ, 고추장(대상) 882원/100g, 김치(대상) 5,873원/kg, 두부(풀무원) 1,077원/100g
 - 전년대비 간장 0.8% 상승, 고추장 49.7% 상승, 김치 4.7% 상승, 두부 0.9% 하락
- ▶ **식량작물** : 쌀 41,400원/20kg(전년보다 하락)
 - 수확기 가격하락과 식용소비량 감소전망으로 가격 하락 전망
- ▶ **엽근채소** : 배추 380/1kg, 무 450원/1kg(전년보다 하락)
 - 배추는 수요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전망
 - 무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을 전망

- ▶ **양념채소** : 건고추 830천원/60kg, 마늘 33,800원/10kg(전년보다 상승)
 -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재고량이 많아 전주 수준 유지
 - 마늘은 이월재고 등으로 약보합세 전망
- ▶ **과 채 류** : 딸기 13,800원/1kg(전년보다 하락)
 - 본격출하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전년보다 하락
- ▶ **축 산 물** : 돼지고기 2,025원/100g(전년보다 상승)
 - 연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상승 전망

❁ 농수산물식품 수입 동향(관세청)

- ▶ 전년 동기대비 주요 김장재료 수입량은 2.9%증가, 김치 수입량은 1.0% 감소

❁ 농업기술정보(농촌진흥청)

- ▶ 겨울엔 복숭아나무가 얼지 않도록 감싸주세요!
 - 보온자재만 덮어도 피해 크게 줄어...원줄기 얼면 치명적
- ▶ 겨울철 블루베리 동해 건조 피해 막아야
 - 블루베리 재배포장 겨울철 관리 요령
- ▶ 포도에 가장 문제 되는 갈색무늬병 획기적 경감법 개발
 - 친환경 잡초관리로 포도 상품성 증진

❁ 정책동향(전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전남도,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청정화 지속유지
-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14. 12. 15.부터 시행
- ▶ 농산물 수급안정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 해외 농업정보(중국농업정보넷, 농업관측센터)

- ▶ 중국, 올해 전국 농업 기계화율 60%를 넘어서다.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가격, 러시아의 수출우려로 6개월래 최고치 달성

❁ 고소득 농업사례(전남농업기술원)

- ▶ 청년농부 ‘팜핑’ 으로 가치창조 농업 실천
 - 청푸름농장 생산, 가공, 체험 연계 부가가치 제고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기 한/장 소 : ‘14. 12. 31./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신 청 자 격 : 만 18세이상 50세미만 병역필,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자로 농업경영체 등록자(예정자)
 - 지 원 내 용 :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축사신축 등 영농자금
- ▶ 2015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장 소 : ‘14. 12. 17 ~ ‘15. 1. 16 까지 /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 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지 원 단 가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사 업 내 용 : 경영·대외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브랜드 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컨설팅(시설·장비 구입 자금, 운영자금으로 사용 불가)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4. 12. 22.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2/22)	전주 (12/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41,400	41,400	41,700	43,600	40,167	↓0.1	0.0
	콩(백태)	35kg	139,000	139,000	142,000	159,600	187,450	↓0.1	↓0.3
	고구마(밤)	10kg	21,000	20,800	19,550	17,000	23,120	↑0.2	↓0.1
	감자(수미)	20kg	21,400	21,600	20,400	19,250	30,373	↑0.1	↓0.3
채소류	배추(가을)	1kg	380	380	421	440	607	↓0.1	↓0.4
	양배추	10kg	5,000	5,000	4,400	5,075	6,958	0.0	↓0.3
	오이(다다기계통)	10kg	58,667	56,000	38,000	59,667	50,917	0.0	↑0.2
	애호박	8kg	28,800	25,800	21,200	24,950	23,303	↑0.2	↑0.2
	토마토	10kg	22,800	23,000	22,900	34,100	30,650	↓0.3	↓0.3
	무(월동)	1kg	450	470	-	453	-	0.0	-
	당근	20kg	16,600	16,800	16,850	21,750	23,343	↓0.2	↓0.3
	건고추(화건)	60kg	830,000	830,000	860,000	680,000	855,367	↑0.2	0.0
	풋고추	10kg	54,600	52,400	63,500	34,000	43,377	↑0.6	↑0.3
	마늘(난지)	10kg	33,800	33,800	33,800	27,400	34,600	↑0.2	0.0
	양파	1kg	520	520	520	813	822	↓0.4	↓0.4
	대파	1kg	1,500	1,580	1,045	1,290	1,691	↑0.2	↓0.1
	파프리카	5kg	28,200	23,000	20,900	26,650	28,263	↑0.1	↓0.0
	방울토마토	5kg	13,000	12,200	11,150	21,000	23,620	↓0.4	↓0.4
	딸기	1kg	13,800	12,800	-	-	-	-	-
과일류	사과(후지)	15kg	54,600	54,600	54,250	73,600	73,133	↓0.3	↓0.3
	배(신고)	15kg	34,000	34,000	30,850	41,400	42,160	↓0.2	↓0.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2/22)	전주 (12/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4,000	514,000	511,000	529,000	558,667	↓0.0	↓0.1
	들깨	45kg	424,000	422,000	407,600	432,000	366,800	↓0.0	↑0.2
	새송이버섯	2kg	8,000	7,000	6,800	8,450	-	↓0.1	-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62	6,628	6,811	5,565	6,580	↑0.2	0.0
	돼지고기(삼겹살)	100g	2,025	2,004	1,927	1,686	1,669	↑0.2	↑0.2
	닭고기	1kg	5,034	5,206	5,295	5,627	5,141	↓0.1	↓0.0
	계란(특란)	10개	1,990	2,003	1,841	1,996	1,834	↓0.0	↑0.1
	우유	1리터	2,546	2,546	2,546	2,537	2,246	0.0	↑0.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4.12.22.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753 천원	4,425 천원	3,772 천원	↑ 7.4	↑ 26.3
	거세	5,173 "	5,244 "	5,332 "	↓ 1.4	↓ 3.0
송아지 (6~7월)	암	1,611 "	1,749 "	1,197 "	↓ 7.9	↑ 34.6
	수	2,135 "	2,217 "	1,988 "	↓ 3.7	↑ 7.4
육우(600Kg)		3,451 "	3,372 "	2,577 "	↑ 2.3	↑ 33.9
젖소수송아지(7일령)		39 "	39 "	15 "	-	↑ 160.0
돼지(110kg)		398 "	409 "	309 "	↓ 2.7	↑ 28.8
육계(원/kg)		1,563 원	1,608 원	2,098 원	↓ 2.8	↓ 25.5
계란(원/특란10개)		1,344 원	1,345 원	1,408 원	↓ 0.1	↓ 4.5
오리(원/kg)		2,666 원	2,666 원	1,960 원	-	↑ 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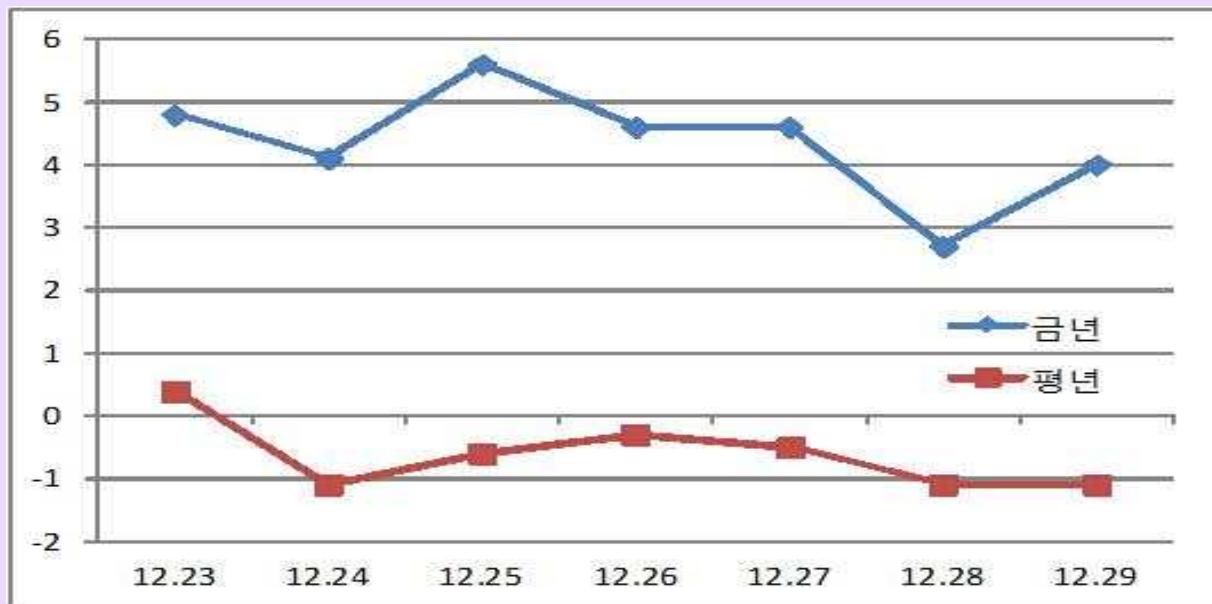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호남내륙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4.3	-0.6	4.9	6.9	4.4	2.5	1.7	-5.1	6.8	0.5
12. 23(화)	4.8	0.4	4.3	7.7	4.9	2.9	1.8	-3.8	5.6	0.1
12. 24(수)	4.1	-1.1	5.2	6.4	4.7	1.7	1.8	-6.6	8.4	0.2
12. 25(목)	5.6	-0.6	6.1	9.2	5.2	4	1.9	-5.8	7.7	0.1
12. 26(금)	4.6	-0.3	4.9	7.4	4.5	2.9	1.8	-4.5	6.3	0.4
12. 27(토)	4.6	-0.5	5.1	7.4	3.6	3.8	1.8	-3.9	5.7	0.3
12. 28(일)	2.7	-1.1	3.7	3.9	3.7	0.2	1.4	-5.2	6.6	1.5
12. 29(월)	4	-1.1	5.1	6.4	4.2	2.2	1.6	-5.8	7.4	1

* 기온은 평균이고, 강수량은 합계이며, 평년은 2009-2013년까지 5년간 평균 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2014년산 신안 시금치 습해 발생상황

‘14년산 전남 신안군 시금치 습해 면적 544ha, 재배면적의 47.7%

□ 신안군 시금치 재배면적 1,140ha,

○ 신안군 시금치 재배면적 : 1,140ha, 피해면적 544ha

- 비금면 642ha(피해면적 332ha), 도초면 449ha(피해면적 212ha)
- 재배면적의 47.7%피해, 피해율 50%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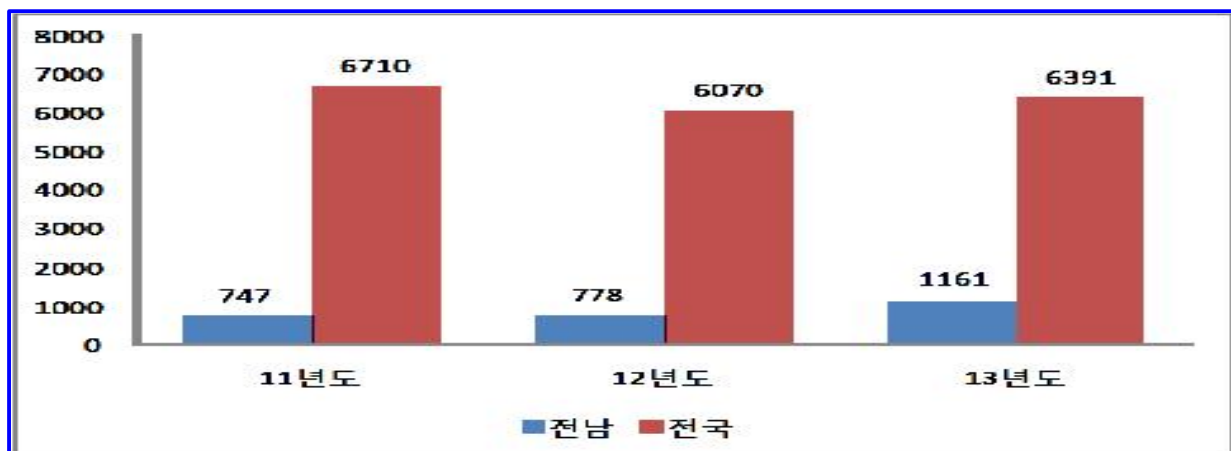
○ 최근 잦은 강우와 흐린날이 지속되어 시금치 포장에 습해가 발생하여 뿌리가 썩고 잎이 하얗게 마르는 등 피해 발생

- 평균기온 : 7.5℃(전년 대비 0.9℃, 평년대비 0.3℃ 높음)
- 강우량 : 119.3mm(전년 대비 66.8mm, 평년 대비84.7mm많았음)

○ 전남지역 시금치 재배면적

‘11)747ha → ‘12)778ha → ‘13)1,161ha, 전국 대비18.2% 차지

< 전남지역 시금치 재배면적 현황 >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배추, 무

- (배추) 12월 가격 배추1kg에 380원
 - 주산지 전라도지역 폭설과 한파로 작업이 전무하여 거래량이 저조하여 시세는 약보합세 전망
- (무) 12월 가격 1kg에 450원
 - 제주 월동무의 출하가운데 추위로 인해 산지작업이 어렵고 부진한 소비동향으로 보합세 형성

엽채 : 딸기, 토마토

- (딸기) 12월 가격 1kg에 13,800원
 - 딸기 12월 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작년보다 가격이 낮을 전망
- (토마토) 12월 가격 1kg에 22,800원
 - 일반토마토 출하량이 많아 12월에도 작년보다 가격이 낮을 전망

과일 : 사과, 배, 감귤

- (사과) 12월 가격 15kg에 54,600원
 - 사과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으로 전년보다 높은 가격 전망
- (배) 12월 가격 15kg에 34,000원
 - 배는 출하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장량이 많아 당분간 전년보다 약세가 지속될 전망
- (감귤) 12월 가격 10kg에 19,000원
 - 노지온주 12월 가격은 품질저하로 전년보다 낮을 전망

4. 농림수산물식품 수입동향(김치)

총 관

□ 전년 동기대비 주요 김장재료 수입량은 2.9%증가, 김치 수입량은 1.0% 감소

○ 주요 김장재료는 2만1천 톤, 김치 완제품은 1만4천 톤 수입

구분	품목명	중량(톤)			수입가격(원/kg)			전년동기대비(%)	
		'12년 (김장기간*)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12년 (김장기간)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14년 (중량)	'14년 (수입가격)
김장재료	전체	28,810	20,524	21,124	-	-	-	2.9	-
	소금	9,125	7,564	12,816	100	82	87	69.4	5.5
	당근	6,763	6,874	5,199	697	724	538	△24.4	△25.7
	마늘	3,481	2,904	1,602	2,503	1,044	1,230	△44.8	17.9
	무	1,935	959	748	298	349	395	△22.0	12.9
	고추류	294	552	242	12,068	9,111	10,363	△56.2	13.7
	양파	6,995	775	238	623	775	760	△69.3	△2.0
	액젓	65	264	163	625	690	690	△38.5	△0.0
	쪽파	19	6	24	1,558	4,057	2,164	274.6	△46.6
	배추	50	-	-	463	-	-	-	-
완제품	김치	16,586	14,439	14,291	610	662	623	△1.0	△5.9

※ 김장기간 : 11. 1 ~ 11. 23

품목별

□ 김장재료 및 완제품(10품목)중 전년 동기대비 수입가격은 4품목 상승, 5품목 하락, 1품목(배추)은 분석기간 수입량 없음

○ 9품목 중 7품목은 여전히 중국산 강세(신선양파, 액젓 제외)

○ (김장재료) 고추류·마늘·무·소금은 수입가격 상승, 당근·액젓·양파·쪽파는 하락

○ (완제품) 김치 완제품은 수입가격 소폭 하락

< 김장재료 및 김치 전년 동기대비 수입가격 증감률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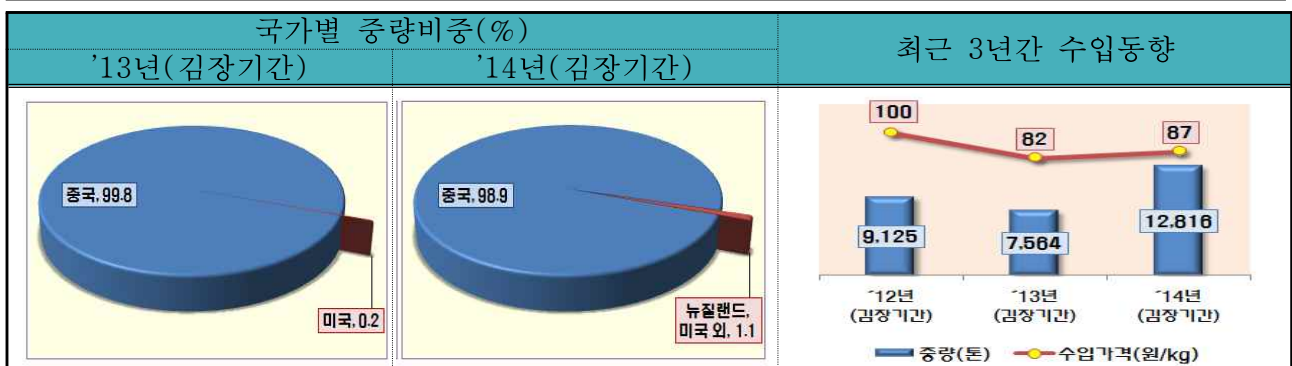


■ 김장재료

□ 소금(식염)은 김장기간 수입량·수입가격 ↑

- 소금은 1만 3천 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9.4% 증가, 수입 가격은 87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증가
- 중국산이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14년 김장기간에는 0.9%p 감소
- 수입가격은 '13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14년 김장기간에는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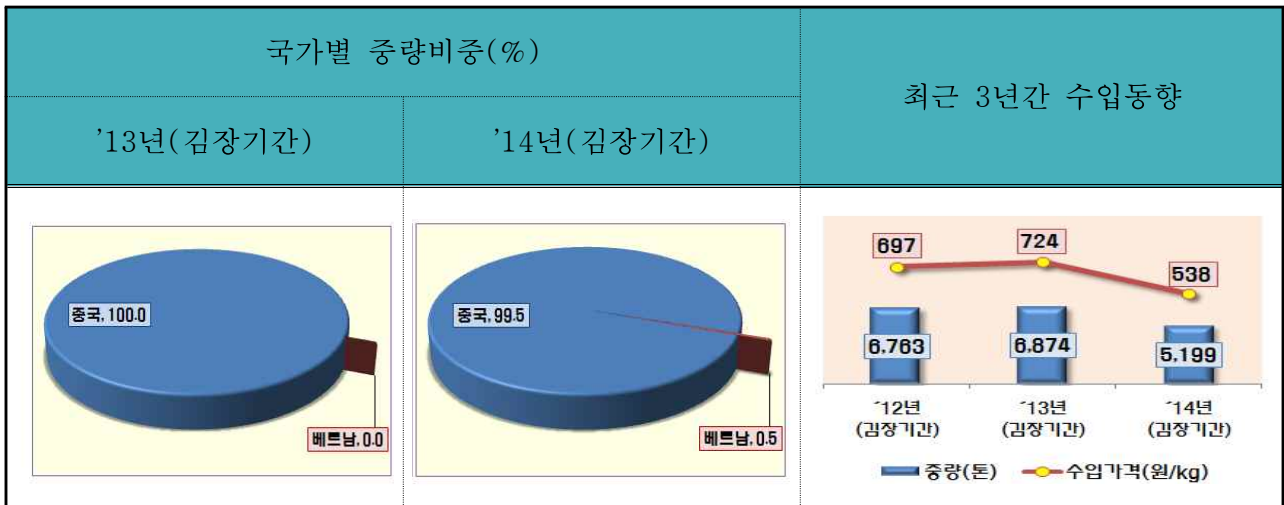
품목명	수입증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소금	7,564	12,816	69.4	6	11	78.8	82	87	5.5



□ 당근(신선·냉장)은 김장기간 수입량·수입가격 ↓

- 당근은 5천 2백 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4.4%, 수입가격은 538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
- 거의 전량 중국산이 수입되며, '14년 김장기간에는 태국산 당근도 소량(0.5%) 수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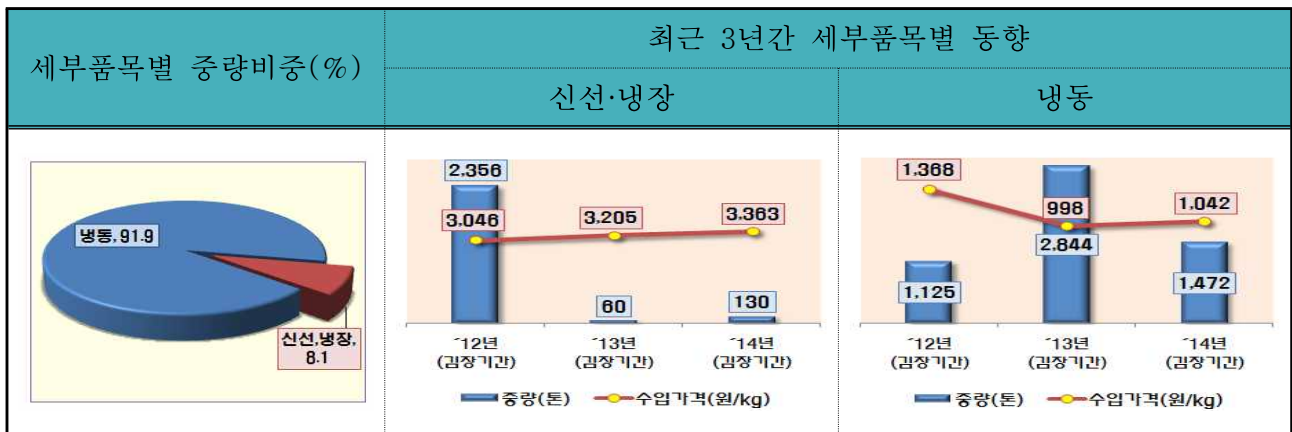
품목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억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당근(신선·냉장)	6,874	5,199	△24.4	50	28	△43.8	724	538	△25.7



□ 마늘(신선·냉장, 냉동)는 김장기간 수입량 ↓, 수입가격 ↑

- 마늘은 1천 6백 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44.8%, 수입가격은 1,230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 전량 중국산이 수입되며, 냉동마늘이 91.9%의 비중을 차지
 - * 신선마늘은 김장기간 3,363원/kg, 냉동마늘은 1,042원/kg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입가격 +4.9%, +4.4%
 - * '12년 김장기간에는 신선·냉장 마늘위주로 수입, '13년·'14년 김장기간에는 냉동마늘 위주로 수입

품목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마늘	2,904	1,602	△44.8	30	20	△35.0	1,044	1,230	17.9
신선·냉장	60	130	116.0	2	4	126.7	3,205	3,363	4.9
냉동	2,844	1,472	△48.2	28	15	△45.9	998	1,042	4.4



□ 무(신선·냉장)는 김장기간 수입량↓, 수입가격↑

- 무는 김장기간 7백 5십 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2.0%, 수입가격은 395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증가
- 중국산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며, 수입가격은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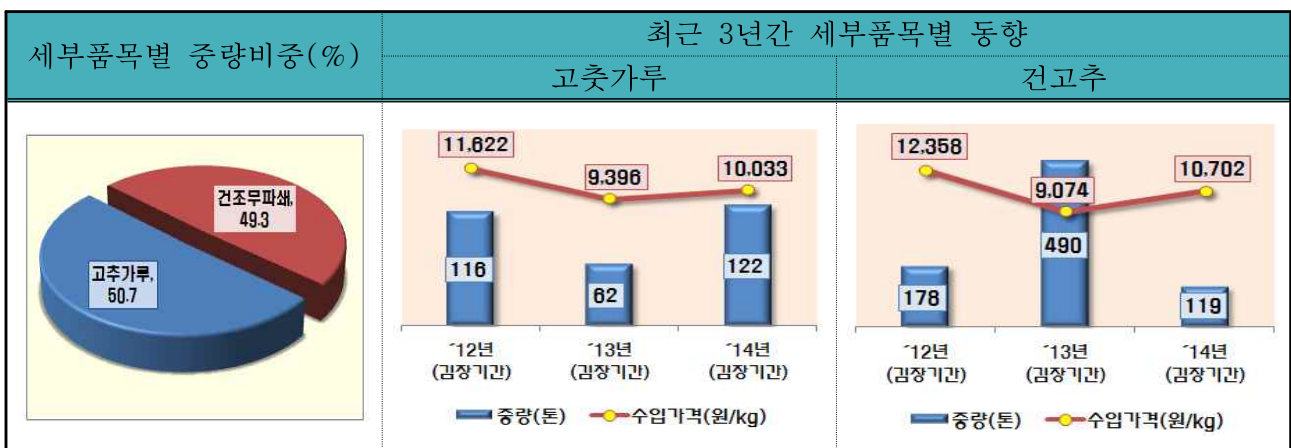
품목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무(신선·냉장)	959	748	△22.0	3	3	△11.9	349	395	12.9



□ 고추류(고춧가루, 건조)는 김장기간 수입량↓, 수입가격↑

- 고추류는 242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6.2%, 수입가격은 10,363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7%
- 중국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4년 김장기간에는 고춧가루(50.7%)가 주로 수입됨.
- * 고춧가루는 김장기간 10,033원/kg, 건고추는 10,702원/kg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입가격 +6.8%, +17.9%
- * '12년·'13년 김장기간에는 건고추 위주로 수입, '14년 김장기간에는 고춧가루 위주로 수입

품목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고추류	552	242	△56.2	50	25	△50.2	9,111	10,363	13.7
고춧가루	62	122	96.3	6	12	109.6	9,396	10,033	6.8
건조무파쇄	490	119	△75.6	44	13	△71.3	9,074	10,702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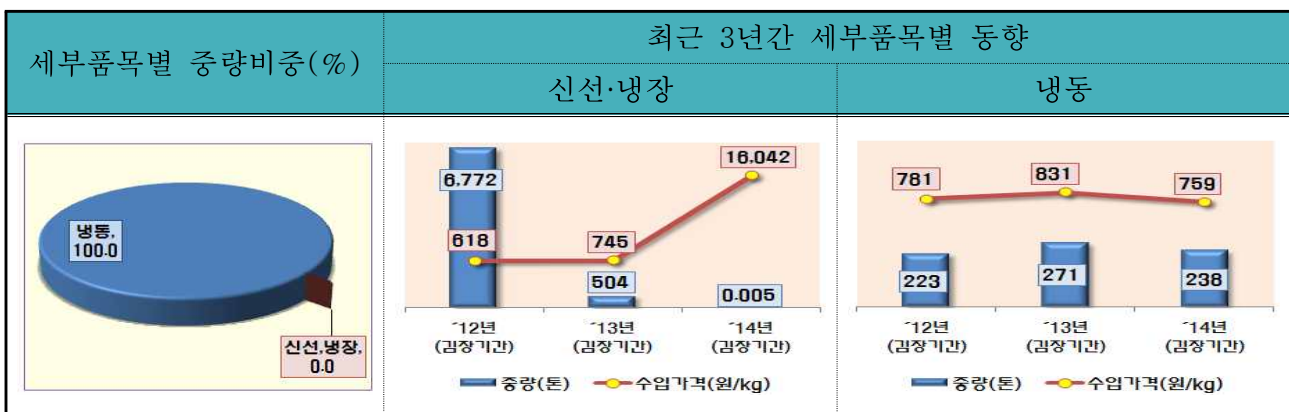


□ 양파(신선·냉장, 냉동)는 김장기간 수입량·수입가격↓

- 양파는 238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9.3%, 수입가격은 760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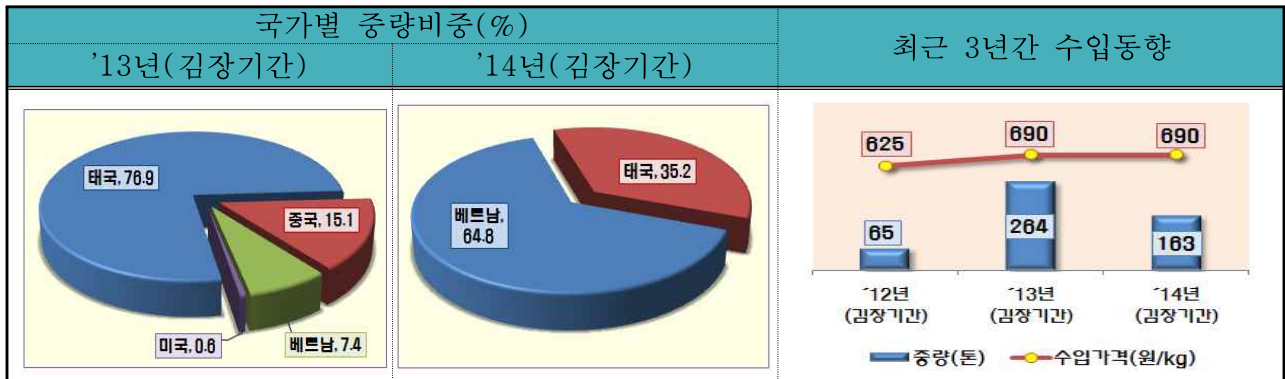
- 신선양파는 미국산이, 냉동양파는 중국산이 주로 수입됨.
- '14년 김장기간에는 냉동양파 위주로 수입, 신선양파 수입량(5kg)은 미미한 수준
 - * 신선양파는 김장기간 16,042원/kg, 냉동양파 759원/kg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수입가격 +2,052.7%, △8.6%
 - * 신선양파는 '13년 김장기간 중국산과 우크라이나산이 수입되었으나, '14년 김장기간에는 고가의 미국산이 전량(100.0%) 수입됨.

품목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양파	775	238	△69.3	6	2	△69.9	775	760	△2.0
신선·냉장	504	0.005	△100.0	4	0.001	△100.0	745	16,042	2,052.7
냉동	271	238	△12.2	2	2	△19.8	831	759	△8.6



- 액젓(어류의 즙)은 김장기간 수입량↓, 수입가격은 크게 변동 없음.
 - 액젓은 163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8.5%, 수입가격은 690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
 - '13년 김장기간에는 태국산이 주로 수입되었으나, '14년 김장기간에는 베트남산(64.8%)으로 1위국 교체

품목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액젓	264	163	△38.5	2	1	△38.5	690	69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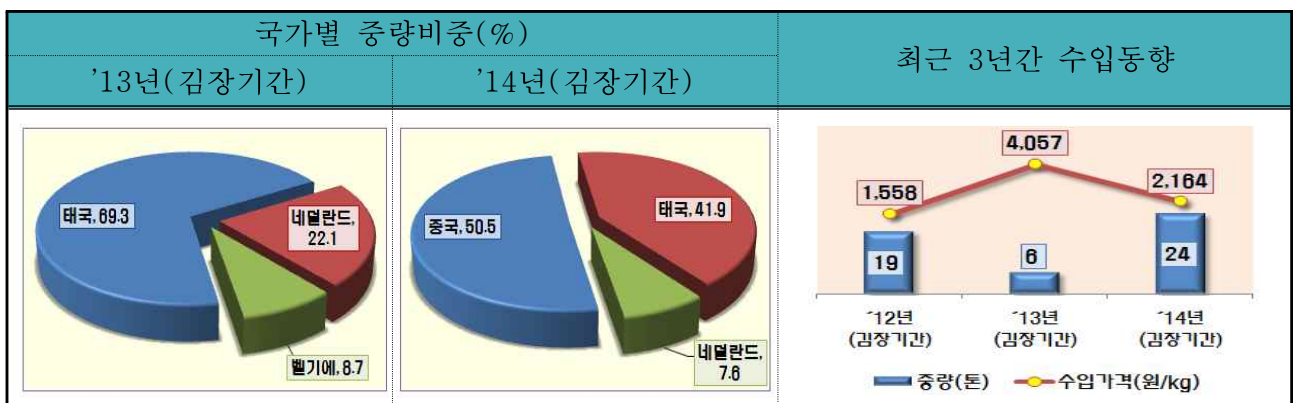


□ 쪽파(신선·냉장)는 김장기간 수입량↑, 수입가격↓

○ 쪽파는 24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274.6%, 수입가격은 2,164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6%

○ '13년에는 태국산이 주로 수입되었으나, '14년 김장기간에는 중국산(50.5%)이 1위를 차지

품목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쪽파(신선·냉장)	6	24	274.6	0.3	1	99.9	4,057	2,164	△46.6



■ 김치 완제품

□ 김치는 김장기간 수입량·수입가격 ↓

- 김치는 1만 4천 톤 수입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 수입가격은 623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 전량 중국산이 수입되며, 수입가격은 안정세

품목명	수입증량(톤)			수입금액(억 원)			수입가격(원/kg)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13년 (김장기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
김치	14,439	14,291	△1.0	96	89	△6.9	662	623	△5.9



* 출처 : 관세청(14.12. 2) 보도자료

참고_1

분석기간별(11월 1~23일) 김장재료 및 김치 수입 동향(세 부)

* 60개 품목 중 수입량이 현저히 적은 국가(중량비 10%미만)는 제외

구분	품목명	국가명	수입중량(톤)			수입금액(천만 원)		수입가격(원/kg)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중량비 (%)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14년 (김장기간)	전년동기 대비(%)
김 장 재 료	소금	전 체	12,816	69.4	100.0	111	78.8	87	5.5
		중 국	12,680	68.0	98.9	103	75.0	81	4.2
	당근(신선,냉장)	전 체	5,199	△24.4	100.0	280	△43.8	538	△25.7
		중 국	5,175	△24.7	99.5	279	△44.1	538	△25.7
	마늘	전 체	1,602	△44.8	100.0	197	△35.0	1,230	17.9
		중 국	1,472	△48.2	100.0	153	△45.9	1,042	4.4
	마늘(냉동)	전 체	1,472	△48.2	100.0	153	△45.9	1,042	4.4
		중 국	1,472	△48.2	100.0	153	△45.9	1,042	4.4
	마늘(신선,냉장)	전 체	130	116.0	100.0	44	126.7	3,363	4.9
		중 국	130	116.0	100.0	44	126.7	3,363	4.9
	무(신선,냉장)	전 체	748	△22.0	100.0	30	△11.9	395	12.9
		중 국	748	△22.0	100.0	30	△11.9	395	12.9
	고추류	전 체	242	△56.2	100.0	251	△50.2	10,363	13.7
		중 국	122	96.3	100.0	123	109.6	10,033	6.8
	고춧가루	전 체	117	87.3	95.4	115	97.8	9,865	5.6
		중 국	119	△75.6	100.0	128	△71.3	10,702	17.9
	고추류 (건조무과채)	전 체	119	△75.6	100.0	128	△71.2	10,701	18.1
		중 국	119	△75.6	100.0	128	△71.2	10,701	18.1
	양파	전 체	238	△69.3	100.0	18	△69.9	760	△2.0
		중 국	238	△12.2	100.0	18	△19.8	759	△8.6
	양파(냉동)	전 체	238	△12.2	100.0	18	△19.8	759	△8.6
		중 국	238	△12.2	100.0	18	△19.8	759	△8.6
	양파(신선,냉장)	전 체	0.005	△100.0	100.0	0.007	△100.0	16,042	2,052.7
		미 국	0.005	—	100.0	0.007	—	16,042	—
	액젓	전 체	163	△38.5	100.0	11	△38.5	690	0.0
		베트남	105	435.0	64.8	7	52.6	629	△71.5
	쪽파(신선,냉장)	태 국	57	△71.8	35.2	5	△60.4	803	40.7
		전 체	24	274.6	100.0	5	99.9	2,164	△46.6
완 제 품	김치	중 국	12	—	50.5	1	—	447	—
		태 국	10	126.8	41.9	4	143.6	3,825	7.4
완 제 품	김치	전 체	14,291	△1.0	100.0	890	△6.9	623	△5.9
		중 국	14,291	△1.0	100.0	890	△6.9	623	△5.9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겨울엔 복숭아나무가 얼지 않도록 감싸주세요!

－ 보온자재만 덮어도 피해 크게 줄어...원줄기 얼면 치명적 －

농촌진흥청은 한파 속에 복숭아나무가 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원줄기(주간부)를 보온 자재로 덮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0년, 2011년, 2013년 겨울에는 전국적으로 복숭아나무들이 어는 피해를 입어 농가의 피해가 컸다. 2010년~2013년도 사례를 볼 때, 대부분의 복숭아 품종은 1월 최저기온이 -21°C 이하를 기록한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 지역 일부에서 재배한 내한성이 약한 품종들은 최저기온이 -18°C 이하인 경우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복숭아나무는 주로 나무의 원줄기, 꽃눈, 꽃눈가지가 저온에 의해 피해를 입으며, 이 중 원줄기가 얼 때 가장 치명적이다.

꽃눈과 꽃눈가지가 어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동고병, 세균성구멍병 같은 병 발생이 늘어 생산량이 감소로 이어진다. 원줄기가 얼면 나무 전체 또는 줄기 일부가 죽어 치명적이다.

겨울철에는 복숭아나무가 얼지 않도록 원줄기를 감싸주는 것이 좋다. 밤에는 보온 효과가 좋고 낮에는 줄기 온도가 많이 오르지 않게 하는 자재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피해 지역 중에서 복숭아 원줄기에 보온 자재를 감싸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농가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다겹부직포(5겹 이상), 볏짚, 두꺼운 부직포 등이 효과적이다. 단, 검은색 부직포나 비닐 소재는 낮 시간에 감싼 부분의 온도를 올릴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종류에 따라 보온효과는 다르지만, 다겹부직포(5겹 이상), 볏짚 등은 밤에 줄기 온도를 5℃ 이상 올리는 효과가 있어 어는 피해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줄기를 덮는 다겹부직포(5겹 이상)는 농업용 보온 자재 생산업체에서 주문 제작할 수 있으며, 흰색 폴리프로필렌 부직포(50g~100g, 6겹)를 박음질된 형태로 주문해 90cm×70cm로 재단해 사용하면 편리하다.

< 보온자재를 이용한 복숭아 주간부 줄기 피복작업 >



▲ 볏짚 피복

▲ 흰색 다겹 부직포(4~6겹)

▲ 두꺼운 부직포

■ 겨울철 블루베리 동해 건조 피해 막아야

－ 블루베리 재배포장 겨울철 관리 요령－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18일 겨울철 동파 예방법 등 블루베리 재배포장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활용해 줄 것을 도내 재배농가에 당부했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물 빠짐이 나쁜 토양, 뒤늦은

비료 주기, 질소함량이 높은 가축 분뇨 또는 완효성 비료 주기, 늦은 여름전정 등으로 늦가을에 가지가 미처 굳어지지 않을 경우 품종에 따라 겨울철에 쉽게 동해를 받는다.

특히 지하부에 있는 블루베리 뿌리는 지상부처럼 굳어지는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쉽게 동해를 받는다.

이에 따라 바크, 목재칩 등 분해가 늦고 비료성분이 적은 유기물로 뿌리로부터 50~70cm 주위에 10~15cm 높이로 덮어주면 큰 도움이 된다.

또 블루베리는 뿌리의 양분과 수분흡수 활동은 정지 상태이지만 토양의 건조는 뿌리를 죽게 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한 과원의 경우 건조 후 수분 재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눈에 의한 가지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 전체를 끈으로 묶어 주거나 지주를 설치해 약한 가지들을 지탱해 준다.

■ 포도에 가장 문제 되는 갈색무늬병 획기적 경감법 개발

－ 친환경 잡초관리로 포도 상품성 증진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은 충북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캠벨얼리’ 포도 과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갈색무늬병을 친환경 잡초관리로 경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도 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가 친환경 잡초관리를 위하여 관행의 부직포 피복과 함께 초생재배, 파쇄목, 흑색비닐 등 6가지 피복 방법

을 지난해부터 실험한 결과 흑색비닐 토양피복에서 갈색무늬병 경감과 함께 당도 향상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포도재배 면적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는 ‘캠벨얼리’ 포도는 갈색무늬병에 약해 농가에서 병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과일에 착색이 오면서 많이 발생하여 조기낙엽으로 이어져 당도 저하는 물론 상품성마저 떨어뜨린다.

이러한 원인은 갈색무늬병이 장마 등에 의한 고온다습으로 토양에서 습기가 올라와 잎에 이슬이 생길 때에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흑색비닐 피복은 초생재배에 비해 습도가 20% 낮았고, 토양 온도는 높여 적절한 나무의 세력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도의 갈색무늬병을 초생재배 대비 7월에는 85%, 병 발생이 많은 8월에는 69% 정도 감소시켰으며, 당도는 0.7브릭스 정도 높여 상품성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검정색 비닐피복을 연중 계속하면 뿌리가 토양 표층으로 올라오므로 포도 수확 후에는 반드시 비닐을 벗겨 뿌리가 뜨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6. 정책동향

◆ 전남도,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 청정화 지속유지

- 전남도는 지난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충북 증평, 충남 천안, 충북 청주, 음성에서 추가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11건의 양성이 발생됨에 따라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12월 18일 위기경보수준이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연중 상시 운영하는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확대하여 구제역 방역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 * 위기경보(4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단계
- 또한,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금년도 발생한 경북, 경남, 충북, 충남지역의 돼지는 우리지역의 도축장에서 도축을 제한하고, 모든 축산농가의 모임을 자제한다.
- 농가의 백신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백신공급분을 조기에 구입하여 우선 공급하고, 도축장에서의 백신항체를 검사할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다.
- 농가별 백신접종 실명제 담당공무원(4천명)을 활용하여 도내 돼지 사육 전 농가에 대해 백신접종 구매 및 접종여부 일제 점검하고 올바른 예방접종 요령에 대해 홍보하고
- 특히, 백신 구매율과 백신 항체형성율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돼지 전 농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점검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확행 한다는 방침이다.

※ 과태료 부과('14.12.) : 26농가(담양·영광 6, 순천·무안 3, 구례·화순, 함평 2, 장성 2)

-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O형+A형+Asia1형 세가지 혼합 백신의 한가지 형인 O형으로 올바르게 철저하게 예방접종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며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과 프로그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100% 예방접종 해 줄 것”과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많이 소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모돈에 백신접종을 한 후 자돈에 1차 접종할 경우에만 항체형성이 잘되므로 모돈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고, 미접종모돈이 있을 경우 자돈에는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결여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여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대만의 사례와 같이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 할 수 있다.

< 구제역 이란? >

-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동물; 偶蹄類)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
- 잠복기는 보통 1~2주 정도임
-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 조건에서 쉽게 불활화 됨

◆ 우리 도 구제역 발생사례 없음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 '14.12.15일부터 시행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장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의 대상 축종을 산란계·양돈에서 육계로 확대하여 12월 15일부터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검역본부는 '12년 3월 20일 산란계를 시작으로 '13년 양돈을 거쳐 이번에 육계농장을 추가 인증하게 되었다.
- 현재 산란계 농장 58개소(73만여 마리), 양돈 농장 1개소(3천여 마리)가 인증을 받아 동물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올해 말부터 육계도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 영국 등에서는 1994년부터 시행

□ 이번에 인증대상이 된 육계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품종으로 사육기간과 용도 등에 따라 육계, 토종닭,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토록 하였으며, 동물복지 육계농장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동물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 ② 농장 내 사육시설은 개선된 형태로 해의 설치 및 닭의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을 제공해야 하며,
- ③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축사시설의 바닥면적이 출하 전 기준으로 육계·토종닭은 m^2 당 19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삼계 m^2 당 35수 이내와 총중량이 30kg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 ④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밝은 상태와 6시간 이상 어두운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며 내부 조명은 균일하게 20 lux이상이어야 한다.
- ⑤ 또한, 자유방목을 추가 인증으로 받기 위해서는 사육시설에 별도의 방목장 면적이 3마리당 $3.3m^2$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 이상 너비 40cm 이

상의 육계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검역본부에 인증심사 서류를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되고, 검역본부는 신청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현장심사 등을 거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와 인증표시간판 등을 교부하고,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식육, 포장육)을 동물복지 운송차량으로 운송하여 지정도축장에서 도축한 경우에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 만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이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허위 표시하여 적발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검역본부는 동물복지 인증표시 및 인증농가의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점검을 실시하여 인증농장의 동물복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또한, 검역본부는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축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 산란계의 슬랫구조물을 설치한 축사는 해의 유사시설로 인정하고, 양돈축사의 경우 온·습도, 환기, 냄새 관리 등이 우수한 최신시설을 설치했을 때 휴식공간 의무면적을 줄여주고,
- 당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부리다듬기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적외선 처치 방법만 허용하여 부리·꼬리 훼손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등 산란계와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기준 주요내용

- (인증사육규모) 최소 인증 사육 마리수가 육계 10,000수(토종닭 6,000, 삼계 17,000) 이상 농가
- (급이) 지름 33cm 이상 원형 또는 타원형 급이기를 육계·토종닭 65수, 삼계 110수당 1대 이상 설치
- (방역 및 위생) 계사 전실설치, 올인-올아웃 적용
- (사육밀도) 육계·토종닭 m² 당 19수 및 30kg, 삼계 m² 당 35수 및 30kg
- (해) 육계 1,000수(토종닭 800수, 삼계 1,700수)당 햇대 2m 제공
- (깔짚) 방역·소독관리 기준 제시 할 경우 재사용 인정
- (조명도) 계사내부 최소 20lux 이상
- (공기오염도) 암모니아 25ppm, CO₂ 5,000ppm 이하
- (방목장기준) 방목장면적 3마리당 3.3m² 이상

◆ 농산물 수급안정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5년부터 「농업전망대회」를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 농업전망대회는 연초 국내외 농림업 환경변화와 주요 농산물 수급전망을 제시하여 한해 농업경영과 농정기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참석자는 '98년 1차 대회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 10배 이상 규모로 확대되었다.
 - * 참석인원 : ('98년) 150명 → ('00년) 700 → ('13) 1,650 ('98 대비 약 11배)
 - * '14 대회결과: '14.1.22, 서울 잠실롯데호텔, 1,280명(단체 · 업체 540, 학계 200, 공무원 170, 농업인 40 등)
- 그러나, 전망대회는 서울에서 개최되어 지역 농업인 등의 참석이 저조하고 생산관리 및 수급안정을 위한 생산·유통주체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농식품부는 대회의 장소, 방식 등 프로그램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보 이용 주체인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여 농업인 등이 스스로 실제적인 생산·유통조절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015년 농업전망대회는 “농산물 수급안정방안, 현장에서 찾는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농업인·유통인의 영농 의사결정 지원에 주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 첫째, 중앙대회(서울)를 폐지하고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권역별 대회로 개편한다
 - 최근 대다수 농업 관련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아울러 지자체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중부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회를 개최하여 접근성의 제고는 물론 유관 기관·단체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영농 및 유통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간다.
- 둘째로, 행사장소를 호텔 위주에서 대학교, 지역문화센터, 공무원연수원 등으로 변경한다.
 - 기존 서울 호텔에서의 행사는 수도권 지역에서의 접근성·행사진행 여건은 좋았으나, 전국 농업인 등 참가자 토론의 장이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올해 새로이 변경하는 권역별 대학교, 지역문화센터, 공무원연수원 등 변경된 장소는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행사여건을 충족하고, 식사 편의 제공 등이 가능하여 농업인·유통인·정책담당자 등의 만남·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전망대회 개최 지역 및 일정>

권역	개최 지역 및 장소	일시
중부권	경기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1월 20일(화)
호남권	전남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1월 22일(목)
영남권	경북 경주 교육문화회관	1월 27일(화)
충청권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	1월 29일(목)
제주도	제주 제주시 농업인회관	2월 3일(화)

○ 셋째로, 기존 단순 정보전달 방식에서 농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농업경영, 수급대책방안 토의방식으로 개편한다.

- 기존에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품목별 농업관측 전망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이었으나,
- 주요품목별 정부의 수급안정대책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 발표 후, 농업인·생산자단체 주도하에 지자체 등과 같이 생산자단체 역할 등에 대해 종합토론하여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망대회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방향, 품목별 수급전망 정보 및 토의결과는 인터넷(<http://aglook.krei.re.kr>)을 통해 전국민에게 모두 공개한다.

◆ 1인 가구 독신시대의 식품소비 행태 변화(농식품 주간동향)

□ 프리미엄 식품 구매율 급증, 여성 및 20~30대 선호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4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프리미엄 가공식품의 구매경험이 작년 37.6%에서 올해 56.8%로 현저히 높아졌다. 웰빙 열풍으로 가공식품 중에서도 몸에 좋은 것을 찾는 소비자 심리 현상이다.
- 실제 프리미엄 가공식품 구매 이유에 대해 '좋은 원료'(32.3%)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은 맛(26.6%)과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14.6%), 첨가물이 적어서(12.3%)의 순이다. 프리미엄 가공식품의 구매경험은 성별로는 여성, 연령대로는 20~30대, 미혼, 청소년 자녀가 있는 소비자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 간편식 구매율도 72.6%에 달해, 2012년 55.3%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간편식을 구입하는 이들은 시간절약(34.8%)은 물론 직접 조리보다 저렴(24.5%)하고, 간편(11.7%)하며, 맛(9.2%)도 좋다는 반응이다.

□ PB·수입식품도 인기, 간편식·냉동식품 구매율 70% 넘어

- 소비자들은 간편식 중에서도 냉동제품류(75.2%)를 가장 선호하며, 레토르트(36.8%), 면류(39.8%), 밥류(39.7%) 등을 구매한다. 레토르트와 밥류보다는 냉동제품류를 찾는 비중이 작년 62.1%에서 올해 75.2%로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냉동간편식 중에서는 만두·딤섬류의 구매율이 작년보다 9.4% 늘어 81.5%를 기록했으며, 냉동간편식 경험자들은 앞으로 볶음밥류 25.1%, 튀김 및 떡·케익류

22.7%, 만두·딤섬류 19.1% 등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PB 가공식품도 과거 ‘값싸고 품질이 낮은 제품’이란 이미지에서 점차 ‘가격대비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울어지며 알뜰구매에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조사대상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55.1%)이 PB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PB식품 중에서는 음료류의 구매경험(34.1%)이 가장 많고, 과자·빙과류(25.1%), 간식·분식류(21.8%), 반찬류(15.7%)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 수입가공식품도 55.3%가 최근 3개월 중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작년 대비 약 23.6% 증가했다. 수입 가공식품 품목군별 구매경험을 보면 과자·빙과류가 3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음료류(19%), 반찬류(13%) 등의 순이다.

□ 일본도 3~4년 전부터 소용량 식품 인기

- 총 세대의 30%가 1인가구인 일본 역시 이미 3~4년 전부터 소용량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음식 남기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성으로 인해 사이즈와 양에 대한 니즈 변화가 뚜렷하다.
- 아지노모토는 가정에서의 조미료 사용이 감소하자 35g 소포장 ‘아지노모토’를, 하우스식품은 주력제품 ‘카레루’의 크기를 절반이하로 줄인 제품을 내놓고 1~2인가구와 독신자들의 소비를 부추겨 매출을 만회하고 있다.
- 기코망은 주력제품의 사이즈를 1/4 정도로 줄인 200ml 간장제품 생산을 확대했고, 식용유 업체인 J—오일밀스도 주력제품인 1ℓ 짜리 카놀라유와 300ml 사이즈의 신제품을 발매했다. 1인 가구의

1회 식용유 사용량은 평균 14g으로 300ml 제품은 매일 1회 요리에 사용할 경우 한 달 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바몬드카레’를 제조·판매하는 하우스 식품은 4인분 용량의 카레를 1인분씩 별도로 포장한 ‘카페카레’ 시리즈를 선보였다.
- 장수상품 또한 이용자의 고령화로 용량 감소와 함께 다루기 쉬운 포장으로 바뀌고 있다. 65년 동안 통런하고 있는 ‘노자키 콘비프(소고기 캔)’의 경우 기존 100g에서 75g으로 줄이고 이지오픈캔 출시로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다. 일본과자의 전설 ‘모리나가 비스켓’도 소자녀화를 의식한 미니사이즈를 출시했다.
- 1인가구를 겨냥한 식품 소형화 식품 추세는 유통업계로도 확산돼 세븐&아이홀딩스가 PB브랜드로 내놓은 소용량 패키지의 냉동식품의 매출이 40~50%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온은 냉동·냉장식품의 용량을 기존보다 10~20% 줄여 저렴한 가격의 독신세대 전용으로 내놓기도 했다.

□ 문제점과 대책

- 오는 2035년 1인 가구 비율이 3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다음은 부부가구 22.7%, 부부+자녀가구 20.3% 순으로, 부부+자녀가구는 연평균 7만7천 가구가 줄어들지만,
- 1인가구는 13만9천가구, 부부가구는 9만5천가구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2010년 가구유형을 보면 부부+자녀가구가 642만7천(37.0%)로 가장 많고, 1인가구 23.9%, 부부가구 15.4% 등의 순이었던 점을 보면 180도 달라지는 구도이다.
-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조현상은 앞으로 지속돼 2

인 이하 소가족 수의 비중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가족 형태의 가정이 늘어날수록 식사준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레토르트나 냉동식품 등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분야의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 하지만, 간편식 구입을 싫어하는 소비자들은 입맛에 맞지 않고 (21.9%), 조미료나 첨가물의 과다함유(20.6%)를 우려하며, 직접 조리해 비해 비싸다(13.2%)는 이유를 들고 있다.
- 따라서 관련 식품업계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더욱 확장될 간편식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아울러 정부는 급변하는 가공식품 소비 행태 분석을 토대로 식품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시장정보 발굴 및 정책 수립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주간언론동향 58호

7. 해외 농업정보

◆ 중국, 올해 전국 농업 기계화율 60%를 넘어서다.

올해 중국 농업부는 2014년 농기구 구매 보조금 정책 시행을 통해 개혁 역량을 강화하면서 농업 발전에 큰 발전을 이루어냈다. 2014년 전국 농작물 경작 종합 기계화율은 60%를 넘어 61%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발표한 “125 계획” 목표치(2015년까지 기계화율 60% 이상 목표)보다 1년 앞당긴 속도이다.

올해 중앙 재정을 통해 분배된 농기구 구매 보조금 총 규모는 237.5억 위안(약 4조 1,6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0억 위안(약 3,500억원) 증가했다. 중국 농업부와 재정부는 농기구 구매 전액 지원, 보조금 쿼터제 등을 활용한 보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을 통해 21개성으로 하여금 농기구가 시급한 곳에 거의 무제한적인 보조금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농기구 빠른 보급을 위해 지급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악용될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받는 대상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정책 정보를 공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정책 성공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전국의 400만 명이 넘는 농민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540만 대가 넘는 새 농기구가 농민들에게 보급되었다.

최근 몇 년간 농기구 장비 총 수량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함과 동시에 장비의 질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다. 올해 전국농기구 기계

총 동력은 10.76억 KW로 전년 동기대비 8.6% 증가했다.

비교적 구식 농기구인 소형 트랙터 보유량은 전년 동기대비 불과 0.6% 증가한 반면, 식량 생산에 반드시 필요 되는 벼 이앙기, 옥수수 콤바인의 보유량은 각각 66.5만대, 34.3만대로 전년 동기대비 9.7%, 20.1%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율을 유지했다. 이는 기계화율이 기계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동반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수치이다.

식량 생산 기계화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옥수수의 기계 수확량 등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더디던 부분의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하에 많은 옥수수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매하면서 올해에만 전국 옥수수 기계 수확 면적이 300만ha 늘고 기계 수확량은 전체 수확 비분의 56%를 넘어섰다.

또한 올해‘삼하’(음력으로 여름에 해당하는 4월, 5월, 6월을 뜻하는 말) 기간 전국 밀의 수확 완료 일자가 전년 동기대비 4~5일 가량 빠르면서 가을 식량 생산을 위한 기초 작업 일자를 앞당겼으며,

전국 벼의 파종, 수확 기계화율은 각각 38%, 81%에 육박하고 올벼의 기계 수확량은 전체 수확 비중의 74.8%까지 상승했다.

농업화의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교육의 보급화도 크게 늘었다. 농업부는 전국 여러 곳에 기계화 생산에 중요한 기술을 선보이는 시범 구역을 설치하여,

주요 농작물의 기계화 생산 기술을 장려하고 기계화에 적합한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장비 그리고 기술을 집대성한 신 농업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과 교육이 적용된 농

작지 총 면적은 1000만ha에 달한다. 이는 당초 <정부업무보고서>에서 제시한 666만ha를 훌쩍 뛰어넘은 양이다.

이 밖에 안정된 기계화율 성장을 위해 농기계 안정성 보장 업무에도 힘을 쏟았다. 당국은 관련부처의 안전생산책임을 철저히 이행하게 하여 농기계에 대한 안전 검험을 강화하고 잠재적 안전 위협을 줄이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올해 1~11월 사이 전국 농기구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부상자 수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각각 전년 동기대비 27.7%, 2.2%, 15.9% 하락했다.

* 출처 : 중국농업정보넷

◆ 해외 곡물시장 현황(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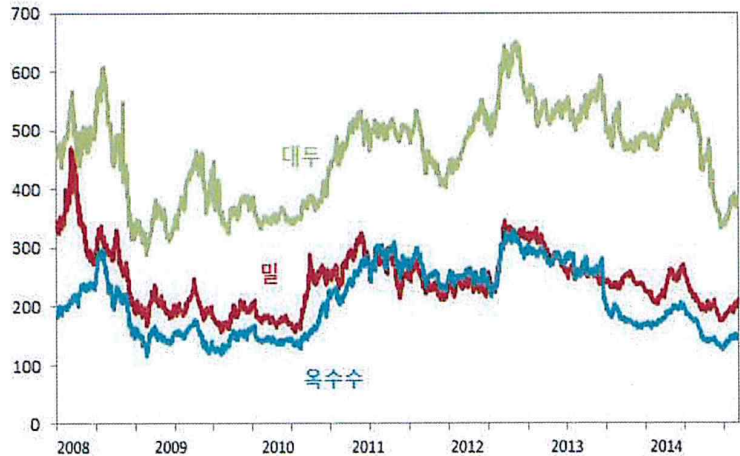
밀가격, 러시아의 수출우려로 6개월래 최고치 달성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4.12.17)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1)	2013 평균
밀	238.24	▲4.0%	199	251
옥수수	160.70	▲0.5%	147	228
대 두	377.35	▲0.4%	379	51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3월물, 대두: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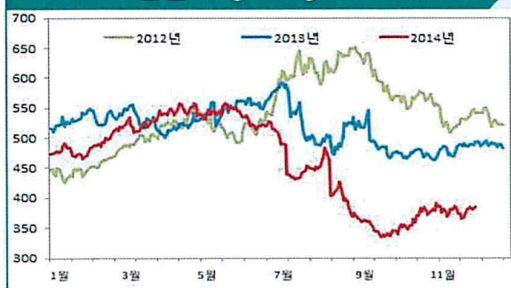
밀 선물가격은 러시아의 국내가격 하락을 위한 수출제한 우려로 급등했음. 러시아는 원유가격 약세 및 서방의 경제제재로 금융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러시아 농업부장관은 수출규제를 위해 '곡물 재고 보충 계획' 을 시행할 것이며 이는 루블가치의 절하로 인해 운영에 박차가 더욱 가해질 것임.

옥수수 선물시장 현황



옥수수가격은 에탄올 생산증가로 강보합 마감했음. 이외의 주요뉴스는 부재한 가운데 강보합 마감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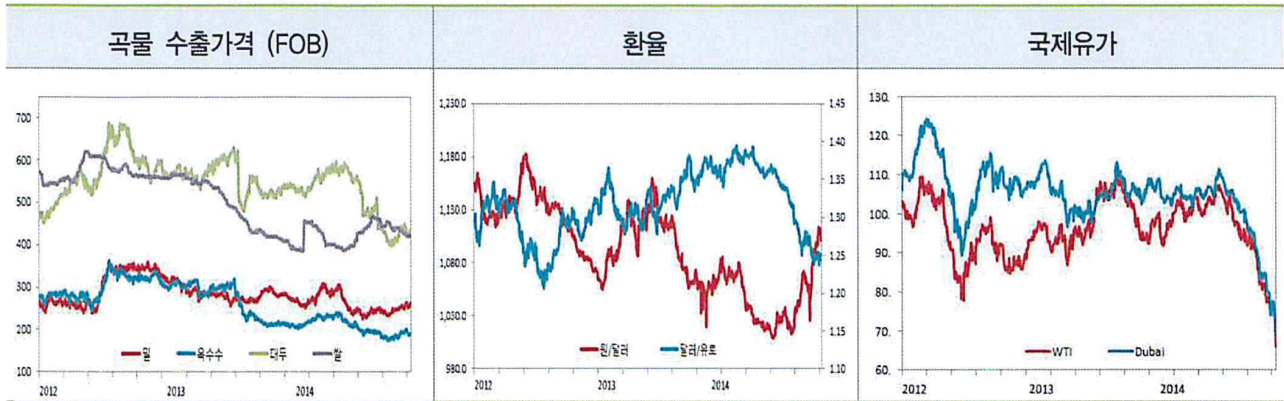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현황



대두가격은 기술적 매수세로 견조세를 보이고 있음. USDA에 따르면, 대두 기말재고는 수출수요 호조로 인해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함.

관심분야

-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세계석유 수요증가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반면 공급증가 전망치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하락했으나, 미국 내 시추리그 수 감소와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약세로 하락폭이 제한되었음.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1)	2013 평균	2012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72	▲2.3%	256	284	300
	옥수수	187	▲1.1%	192	265	300
	대두	423	▲0.7%	432	556	571
	쌀	420	-	424	488	572
환 율	원/달러	1,104	▲0.5%	1,096	1,095	1,127
	달러/유로	1,247	▲0.6%	1.25	1.33	1.29
국제유가 (US\$/barrel)	WTI	57.81	▼3.6%	75.70	97.94	94.19
	Dubai	60.51	▼1.7%	77.09	105.32	109.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4.12.11(수출가격), '14.12.15(환율), '14.12.12(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일본은 경매에서 멥쌀 51,000톤을 구매했으며, 이는 4-5월 선적분 태국산 장립종 27,000톤, 3-4월 선적분 미국산 중립종 24,000톤을 포함함.
- 이집트 GASC는 제분용 밀 180,000톤을 구매했으며, 이는 1월분 러시아산 120,000톤은 CIF기준 262.76~263.38달러에, 프랑스산 밀 60,000톤은 262.64달러에 구매했음.
-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2014/15년산 밀 1백만 톤을 추가로 수출하도록 허가하였음.
- 중국의 2015년 TRQ는 밀은 9.6백만 톤, 옥수수는 7.2백만 톤, 쌀은 5.3백만 톤으로 변화없음.

8. 고소득 농업사례

■ 청년농부 ‘팜핑’으로 가치창조 농업 실천

- ‘청푸름 농장’ 생산, 가공, 체험 연계 부가가치 제고 -

목포에서 배로 20분정도 들어가야 하는 섬, 신안군 자은도, 이곳에서는 전남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농촌체험과 캠핑을 접목한 농장운영으로 돈 버는 농촌사업가의 꿈을 키우는 청년이 있다.

주인공은 ‘청푸름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우(34) 대표, 초등학교 5학년 되는 해에 귀경하여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던 그가 농사에 뛰어들게 된 동기는 2008년 농협에 근무하게 되면서였다.

경제 사업을 담당하면서 농사를 알게 되었고, 수확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5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2012년 본격적으로 농사에 뛰어들었다.

김대표의 농업창업 아이템은 농장체험과 캠핑을 엮은 ‘팜핑’이다.

섬 자원을 활용하여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지치고 힘든 도시 소비자들이 잠시 여유로움을 느끼고, 텃밭에서 먹을 것을 준비 해 달콤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캠핑도 즐기고 농촌체험도 할 수 있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나무늘보’라는 팬션을 운영하면서 땅콩, 고구마, 옥수수, 배추, 무 등 직접 재배한 작물 수확을 체험과 연계하고, 섬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그물낚시 체험, 조개캐기 체험, 불계잡이 체험, 고동 소라잡기 체험, 자전거 투어, 바다낚시, 두봉산 산행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전남농업기술원의 창업지원 사업으로 ‘싱싱하고 푸르다’는 의미의 농장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풍을 맞고 자란 콩과 고추 그리고 3년 이상 숙성한 명품 천일염만을 사용하여 된장 등 전통 저염장류 제품 5종을 개발하였다.

청푸름 농장에서 금년에 유치한 고객은 2,000여명, 팬션운영 매출액 45백만원에 농산물 판매 매출액 30백만원 등 총 86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59백만원에 비해 46%가 증가했다.

김대표는 “내 가족이 먹는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한번 방문했던 고객이 따뜻한 정을 느껴 다시 방문했을 때 큰 보람을 느낀다” 며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낙후된 자운도를 지역 사람들과 함께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9. 사업신청 안내

◆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4. 12. 31까지 /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지원자격 : 만18세 이상 50세 미만,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자, 농업 경영체등록(예정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축사신축 등 영농창업 자금
- 지원액 : 1인당 2억원 한도(연2%, 3년거치 7년 상환)

◆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4. 12. 17 ~ '15. 1. 16 까지 /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 (농업법인 등) 최근 2년 이상의 회계장부 기록실적(결산서로 대체 가능)이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 출자자 포함)의 법인
- 지원단가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50%)
- 사업내용 : 경영·대외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브랜드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등 컨설팅(시설·장비 구입자금, 운영 자금으로 사용 불가)

주간

전남농업정보

14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